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9. 25.(금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성호, 사무관 오승열, 주무관 임은숙 • ☎ (044) 201-3759, 4837	
보도일시		2020년 9월 28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27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, 클라우드 기반으로 더 편리해진다

- 비대면 서비스 강화, 건축물대장 발급 편의성 향상 등 2차 개선 사업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건축심의 등 건축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“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2차 개선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.
-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서,
 - 건축물대장 발급(약 연 70만 건), 건축 및 주택 인허가,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다양한 건축행정서비스(약 연 6,400만 건)를 제공하고 있다.
-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(60일→28.7일)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,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분산구조로 인해 신속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.
 -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‘19년~’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「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 개선방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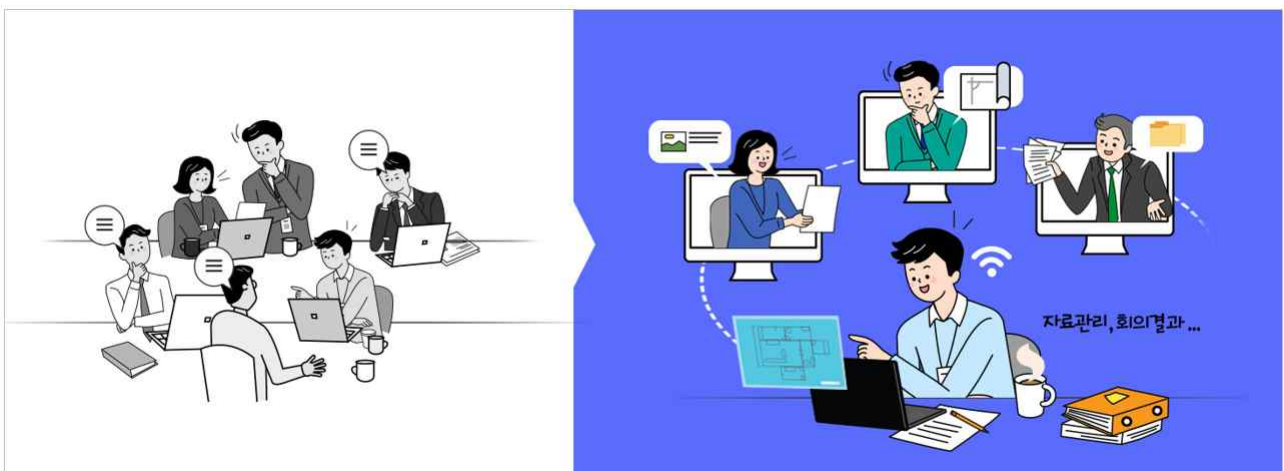
- 공동주택 등의 증축·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시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하여 현황정보 자동반영 및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.
- 건축인허가, 착공, 사용승인,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.

② 건축행정에도 비대면 서비스 제공

- 온라인 기반 건축심의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건축심의* 서비스 강화한다.

* 건축주, 설계자, 전문위원, 공무원 등이 모여 대면회의로 '19년 11,742건 실시

- 코로나-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, 심의회의 진행,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.



- 또한, 인허가, 협의, 점검·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'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.

3 인허가 신청 시 BIM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건축물 도면 온라인 발급 지원

-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건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로서 BIM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*이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,

*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3차원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기술로서, 세계경제포럼에서 건축·건설산업의 파급기술로 선정('16)

- 건축행정시스템도 이에 발맞춰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,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.
- 또한,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, 임차인,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.

□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성호 과장은 “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'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,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” 이며

- “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도면 등의 건축정보를 공개하여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고, 건축물대장의 정확성 제고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오승열 사무관(☎ 044-201-375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참고1

세움터 개요 및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추진방안

□ 세움터 개요

- 건축·주택 인허가 등 국민의 주거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행정 민원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
주요업무 및 사용자	업무	건축인허가 / 건축물대장관리 / 주택인허가 / 사업관리 / 정비사업 등
	사용자	국민(민원인, 건축사 등) / 공무원(국토부, 지자체, 협의기관 등)
특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 민원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적 제출, 관계기관과의 사이버협의를 등 행정처리 전 단계 관리 · 건축물대장(건축물현황도), 필증 등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국민에 제공 	
위 상	(국가표준시스템) 17개 시도, 228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표준으로 사용 (기간정보시스템) 정부24, 시군구행정정보화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한 업무처리	

□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

- 245개 지자체에 분산·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('21년까지 재구축, '22년 전환 운영)
- 245개 지자체 건축인허가, 건축물대장, 도면정보 등을 통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및 국가정책 지원 효율화 및 업무개선

□ 배경 및 추진방안



 국토교통부

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(세움터)

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은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편하고, 지자체별 분산운영 구조에 따른 개선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'19년~'21년까지 3개년 간 고도화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'22년 전국에 완전히 보급될 예정입니다.

클라우드 건축행정시스템?



지자체 분산 시스템 → 중앙/지자체 SAP 통합 → 전국 지자체 DB 통합 →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시스템

안정성, 편의성 up!

1 **민원신청이 편리해집니다.**

- 지역별 장애없는 안정적 민원신청
- 순차적 ActiveX 제거

EASY!



2 **행정서비스가 신속해집니다.**

- 전국 단위 정보 조회
- 다양한 인허가 기관 활용



3 **건축정보 활용이 쉬워집니다.**

- 건물단위 ID 관리
- 용이한 정보통합
- 도면정보 활용 확대



추진계획

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<p>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기반 마련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대민 포털 및 사업자 인원</p>	<p>핵심 민원업무 서비스 구축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건축민원, 건축인원 심의</p>	<p>정보활용체계 완성</p> <p style="font-size: small;">주택, 정비사업, 건축물대장 인원</p>	<p>전국 확산</p> 

 국토교통부

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<http://www.eais.go.kr>



건축행정시스템